

2021년 2월 19일

# KIWOOM DAILY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서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## 미 증시, 인플레이 및 미-중 마찰 불구 낙폭 축소

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, “다음 주 추가 부양책 법안 통과 할 것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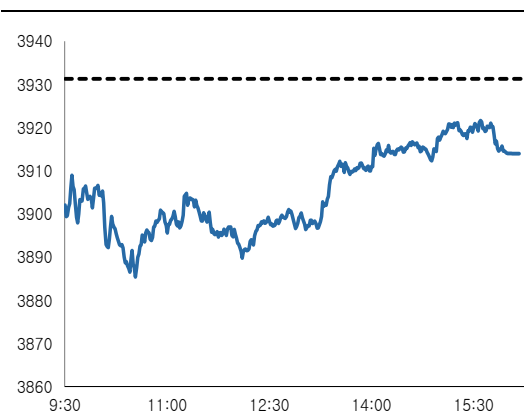
미 증시 변화 요인: 인플레이, 미-중 마찰에서 추가 부양책으로 전환

미 증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 및 고용시장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 출발.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, 희토류 등에 대한 해외 공급망 의존도 검토 소식이 결국 미-중 마찰 확대 우려를 부각시킨 점도 영향.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음 주에 하원에서 추가 부양책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자 낙폭이 일부 축소(다우 -0.38%, 나스닥 -0.72%, S&P500 -0.44%, 러셀 2000 -1.67%)

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며 이를 빌미로 성장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음. 1월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1.4% 상승해 예상치인 1.0%를 상회. 특히 에너지 부문이 지난 달(mom +8.1%)에 이어 전월 대비 7.4%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감. 비 에너지 가격도 전월 대비 0.8% 상승해 2011년 4월 이후 월별 상승폭이 가장 컸음. 상품 가격의 상승이 주변부로 확산 되고 있음을 보여줌. 전일 발표된 소매판매(mom +5.3%) 등 인플레이를 자극할 지표들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. 여기에 고용시장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.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86.1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주 수치도 79.3만 건에서 84.8만 건으로 상향. 더불어 연속 신청 건수도 코로나 이전 170만건대 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449.4만 건으로 발표되는 등 더딘 고용 회복 또한 부담.

더불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, 고용량 배터리, 희토류에 대한 미국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미-중 마찰 이슈를 자극한 점도 영향. 지난 7일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대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러한 조사는 결국 중국과의 마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 지난 11일 전화 회담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이든과 달리 시진핑은 미국과의 협력을 언급 했으나, 전일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금지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.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음 주에 추가 부양책 관련 법안을 통과 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해 시장의 관심이 금리 및 고용, 미-중 마찰에서 추가 부양책으로 전환.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자 지수는 낙폭이 일부 축소되며 마감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종류	Close	D-1	지수종류	Close	D-1
KOSPI	3,086.66	-1.50	홍콩항셍	30,595.27	-1.58
KOSDAQ	967.42	-1.26	영국	6,617.15	-1.40
DOW	31,493.34	-0.38	독일	13,886.93	-0.16
NASDAQ	13,865.36	-0.72	프랑스	5,728.33	-0.65
S&P 500	3,913.97	-0.44	스페인	8,058.10	-0.80
상하이종합	3,675.36	+0.55	그리스	782.23	-0.83
일본	30,236.09	-0.19	이탈리아	22,921.83	-1.11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### 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# 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
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사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##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### 전기차, 태양광 하락 Vs. 유틸리티 강세

테슬라(-1.35%)는 전일 4% 넘게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 전환에 성공한 후 오늘은 매물 소화를 보이며 하락했다. 특히 비트코인 투자 후 지속적인 헤지펀드들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모델3 가격 인하 소식도 부담을 줬다. 더불어 니오(-5.04%), Xpeng(-5.21%) 등 중국 전기차 업종 대부분이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줬다. 월마트(-6.48%)는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하고 실망스러운 가이드언스 발표로 급락했다. 올해는 8.6% 성장하겠지만 내년에는 한자리 수 초반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

애플(-0.86%)은 주요 주주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점과 애플 게임스가 유럽에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. 더불어 인플레이 우려가 여전히 이어진 점도 매물 출회 요인 이었다. 태양광 업체인 선파워(-16.69%)는 부진한 실적 발표 후 급락했으며 이 여파로 퍼스트솔라(-4.65%) 등 여타 태양광 업종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. 반면, 클라우드 통신 플랫폼 회사인 트윌로(+7.73%)는 11분기 연속 수익을 발표하는 등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했다. 마이크론(+2.89%)은 시티가 D램 가격이 예상보다 좋으며 수급 불균형으로 2021년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마이크론에게 행복한 날이 다시 왔다고 언급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.

#### 주요 ETF

ETF 종류	동락률	ETF 종류	동락률
원유시추업체 ETF(XOP)	-4.39%	대형 가치주 ETF(IVE)	-0.41%
에너지섹터 ETF(OIH)	-4.11%	중형 가치주 ETF(IWS)	-0.87%
소매업체 ETF(XRT)	-1.34%	소형 가치주 ETF(IWN)	-1.55%
금융섹터 ETF(XLF)	-0.59%	대형 성장주 ETF(VUG)	-0.34%
기술섹터 ETF(XLK)	-0.49%	중형 성장주 ETF(IWP)	-0.46%
소셜 미디어업체 ETF(SOCL)	-1.04%	소형 성장주 ETF(IWO)	-1.72%
인터넷업체 ETF(FDN)	-0.61%	배당주 ETF(DVY)	-0.37%
리츠업체 ETF(XLRE)	-0.05%	신흥국 고배당 ETF(DEM)	-0.25%
주택건설업체 ETF(XHB)	-0.58%	신흥국 저변동성 ETF(EEMV)	-1.01%
바이오섹터 ETF(IBB)	-1.69%	미국 국채 ETF(IEF)	-0.01%
헬스케어 ETF(XLV)	-0.63%	하이일드 ETF(JNK)	-0.12%
곡물 ETF(DBA)	+0.36%	물가연동채 ETF(TIP)	-0.42%
반도체 ETF(SMH)	-1.06%	Long/short ETF(BTAL)	+1.30%

#### 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	D-5	D-20
에너지	339.66	-2.27%	+1.25%	+2.78%
소재	462.67	-0.62%	+0.21%	-3.13%
산업재	756.26	-0.49%	-0.39%	-0.27%
경기소비재	1,373.25	+0.14%	+0.21%	+0.60%
필수소비재	675.81	-0.13%	-0.19%	+0.20%
헬스케어	1,347.97	-0.65%	-0.41%	-2.44%
금융	531.43	-0.50%	+2.36%	+3.55%
IT	2,391.35	-0.45%	-0.21%	+3.25%
커뮤니케이션	237.90	-0.75%	+0.25%	+5.59%
유틸리티	315.83	+0.55%	-1.98%	-1.65%
부동산	236.47	-0.03%	-1.18%	+3.08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## 한국 주식시장 전망

### 반도체 업종 주목

MSCI 한국 지수 ETF 는 1.48% MSCI 신흥 지수 ETF 는 1.38% 하락 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07.0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전일 한국 증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이슈가 부각되며 여전히 이어진 외국인의 현/선물 순매도 여파로 1.5% 하락했다. 더불어 중국 심천지수가 희토류 수출 금지 가능성이 부각된 후 미-중 마찰 확대 우려로 장중 2% 상승에서 2%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된 점도 부담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.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, 고용시장의 더딘 성장 여파로 하락한 점은 부담이다. 그렇지만 미-중 마찰 이슈는 전일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한편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.99% 하락 했으나 마이크론의 경우는 씨티가 수급 불균형으로 2021 년까지 D 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행복한 날이 다시 왔다고 언급하자 2.89% 상승한 점은 관련 업종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 더불어 시장의 화두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언으로 인플레이션 등에서 추가 부양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.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보합권 출발 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.

## 주요 경제지표 결과

### 미국 고용지표 둔화

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(84.8 만건)는 물론 예상(76.8 만건)을 상회한 86.1 만건으로 증가했다. 특히 지난 주 수치도 79.3 만건에서 84.8 만건으로 상향 된 것으로 고용시장 둔화는 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. 연속 신청 건수도 449.4 만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.

1 월 미국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.4% 상승해 지난달(mom +0.9%)은 물론 예상(mom +1.0%)을 상회했고,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2.5% 상승해 예상(mom +0.8%)을 크게 상회했다.

1 월 미국 주택 착공건수는 전월(168 만건)이나 예상(165.5 만건)을 하회한 158 만건 증가에 그쳤다. 허가건수는 전월(170.4 만건)과 예상(167 만건)을 상회한 188.1 만건을 기록했다.

2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(26.5) 보다 둔화된 23.1 로 발표되었으나 예상(20.0)을 상회했다. 세부 항목은 신규수주(30.0→23.4)가 둔화되었으나 고용지수(22.5→25.3), 재고지수(12.6→20.0)은 개선 되었다. 한편 기대지수는 52.8에서 39.5 로 크게 위축되었다.

## 상품 및 FX 시장 동향

### 국제유가, 공급 증가 우려 속 하락

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OPEC+ 회원국들이 3월 4일 있을 회의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. 장중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주 원유 재고에 대해 73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상승 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공급 증가 이슈를 빌미로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추정한다.

달러화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를 통해 경제 정상화 등 미국 경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. 유로화는 전일 약세에 따른 반발 심리가 유입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.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.4% 약세를 보였는데 미-중 마찰 이슈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.

국채금리는 고용지표 둔화라는 하락 요인과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상승 요인이 충돌하며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. 한편, 여전히 일부 상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했다.

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이어지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.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. 대두, 옥수수 등 곡물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대두는 남미 날씨 개선에 따른 수확 가속화 소식으로 하락했으나, 밀은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.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.61% 상승했다.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60.52	-1.01	+3.14	Dollar Index	90.554	-0.44	+0.15
브렌트유	63.93	-0.64	+4.56	EUR/USD	1.2093	+0.46	-0.31
금	1,775.00	+0.12	-3.67	USD/JPY	105.67	-0.19	+0.88
은	27.118	-0.87	-0.01	GBP/USD	1.3975	+0.85	+1.15
알루미늄	2,137.50	+1.06	+2.79	USD/CHF	0.8959	-0.33	+0.65
전기동	8,553.00	+1.94	+3.29	AUD/USD	0.7772	+0.27	+0.26
아연	2,855.50	+1.40	+2.37	USD/CAD	1.2677	-0.20	-0.22
옥수수	549.00	-0.32	+3.05	USD/BRL	5.4317	+0.35	+0.91
밀	665.25	+2.66	+3.78	USD/CNH	6.4591	+0.37	+0.56
대두	1,376.50	-0.60	+1.77	USD/KRW	1107.60	+0.01	-0.81
커피	129.30	+1.49	+4.99	USD/KRW NDF1M	1107.03	+0.05	+0.34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1.291	+2.02	+12.73	스페인	0.339	+5.20	+21.90
한국	1.855	-0.70	+3.50	포르투갈	0.238	+5.30	+17.20
일본	0.097	-0.20	+1.40	그리스	0.871	+6.30	+11.70
독일	-0.346	+2.20	+11.20	이탈리아	0.647	+6.20	+19.20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